

월간 실적보고

2017.01

Summary of 2017 Jan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10.9% 성장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10.9% YoY 증가

- 패키지 3.4% / 티켓 23% YOY 증가 (14.1만명 / 10.4만명)
- 패키지 ASP 4.2% YOY 증가

3. 유럽 39.1% , 미주 34.2% , 남태평양 33.2%

- 장거리 노선 모두 33% 이상 성장
- 일본 제외한 전 지역 플러스 성장

1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10.9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10.9%, 송객인원 24.5만명
 패키지 인원 성장률 3.4%, 14.1만명. ASP 성장률 4.2%. 장거리 지역의 큰 성장이 ASP YOY 증가 원인.
 티켓 인원 성장률 23%, 10.4만명. 역대 최초로 월간 10만명 송객인원 돌파. 3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.

1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7	141,059	104,351	245,410
2016	136,469	84,840	221,309
YOY	3.4%	23.0%	10.9%

패키지 YoY : 11월 12.5% → 12월 6.6% → 17년 1월 3.4%

티켓 YoY : 11월 18.5% → 12월 11.7% → 17년 1월 23%

총송객 YoY : 11월 14.8% → 12월 8.8% → 17년 1월 10.9%

지역별 성장 (YoY)

유럽 39.1%, 미주 34.2%, 남태평양 33.2%, 중국 9.9%, 동남아 7.9%

유럽 +39.1%, 2달 연속 33% 이상 성장. 테러 이전인 15년 1월 보다 많은 송객인원. 회복 넘어 재성장 구간 진입. (15년 1월 6,590명 → 16년 1월 4,963명 → 17년 1월 6,906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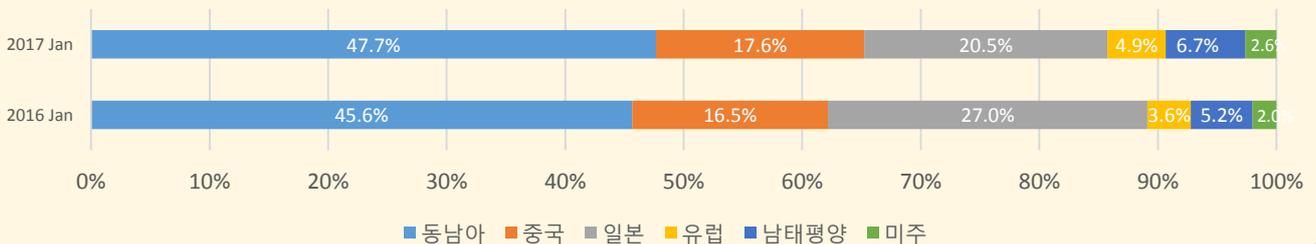
미주 +34.2%, 남태평양 +33.2%, 같은 장거리인 유럽 회복에도 성장률이 빠지는 풍선효과 없이 장거리 모든 지역 33%이상 성장. 특히, 남태평양은 11개월 연속 두 자리수 성장 지속.

중국 +9.9%, 동남아 +7.9%, 장거리 대비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.

일본 -21.3%, 부진했지만 다른 근거리 지역의 성장으로 만회. 1분기 중 플러스 성장 가능 예상.

16년 4분기 촛불시위 참여 등으로 젊은 층의 근거리 예약 수요가 정체되어 근거리 지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렸지만, 모든 장거리 지역의 30% 이상의 성장하며 매출 기대감 증가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17년 2월	17년 3월	17년 4월
증감률	27.0%	54.5%	58.9%

* 2017.01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17년 2월 예약률은 27%로 16년 12월 31일 기준의 2월 예약률 대비 3.1%p 하락, 양호한 예약률 지속.

17년 3월, 4월 예약률 50% 이상으로 **1분기 이후 2분기도 매우 좋은 상황.**

2월 이후는 장거리 뿐만 아니라 단거리 지역의 성장성도 1월보다 개선될 여지가 많으며, 볼륨과 수익성 모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.